

# 광주시교육청, 시민과 소통방식 바꾼다

## 종이 소식지 발행 줄이고 SNS 활용 확대 '광주교육 소식지' 연 4회(분기별) 발행

광주시교육청이 유튜브·SNS 등을 이용한 '시민과 상호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간지 형태로 발행을 제외하고 매월(연 8회) 발행하던 '광주교육 소식지'는 연 4회(분기별) 발행으로 축소된다.

시교육청은 15일 광주시교육청 자치법규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매체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청은 이번 조례와 지난 9월19일 수립한 '광주교육 홍보 인터넷 매체 활성화 계획'에 따라 누리집 블로그를 신설하고 유튜브 영상을 적극 제작하는 등 교육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매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 자체에도 시민 참여를 늘린다. 홍보기자단을 현재 28명에서 2020년 300명 내외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 기자단 규모는 페이스북·블로그·소식지 기자단

학생 100명과 학부모·시민·교직원 25명, 유튜브 기자단으로 초·중·고 학생 75명과 청소년영상아카데미 등 참가자 80명 수준이다.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교육과 글쓰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식지 제작, 대외이미지제작, 홍보관 운영 예산은 축소된다. 방학이 포함된 4개월을 제외하고 매월 약 1만부 발행돼 각급 학교, 교육기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던 '광주교육 소식지'는 분기별 발행으로 개편된다. 내용도 학교 현장 소식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바뀐다.

시교육청은 올해 9월16일 기준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5개 사회관계망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과 폭넓은 소통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5개 계정 구독자(팔로우)를 합하면 3만5천 명에 달한다.

시교육청 장문수 공보담당관은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기자



## 고흥 금산초,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 행사

금산초등학교는 15일 교내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 주건을 맞이하여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추어야 할 컴퓨팅 사고력 증진과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라는 주제로 학생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금산초는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시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Forza Horizon, 엔트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의 이해와 코딩 체험을 통해 논리력과 창의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소프트웨어의 의미와 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도 다양한 부스 활동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김은솔 학생은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윤제현 교사는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했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학생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체험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운영 소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김은솔 학생은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윤제현 교사는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도록 했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학생들이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체험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며 운영 소감을 전했다.

## 전남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갖고 직업교육 관련 진로지도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2019.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서부

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개최했다. 15일에는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서부권 설명회를, 16일에는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동부권 설명회를 4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중학교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

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20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시기여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관심을 끌었다.

설명회는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김정선 장학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책 방향 설명, 여수석유화학고 정성훈 교사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로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 중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국립공립공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에 취업한 학생들이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소감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직업교육 취업활성화 정

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특성화고 학생 대상 공무원 선발 비율 확대, 취업연계장려금 3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국립대진학경로 구축, 대학진학자 등록금 장학 지원 등이 그 골자이다.

2020학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원서접수는 마이스터고 4교(한양대학교, 여수석유화학고, 전남생명과학고, 완도수산고) 및 미래농업선도고 1교(호남원예고)의 경우 21일~24일까지, 그 특성화고 42교는 11월 18일~11월 21일까지 받는다.

미래인재과 이현희과장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더불어 전남교육청 나름의 다양한 취업중심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학생 맞춤형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선취업 후진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서부교육청, 2020 중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시작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15일 서부 관내 전체 중학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 58명을 대상으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0 중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실현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교육활동 정

번 협의와 컨설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20학년도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전체 3개 학년에 걸쳐 시행되는 해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지닌 중학교 교감 12명의 컨설턴트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내년도 신입생들의 3개년 교육과정 및 전 학년의 편성안

에 대해 학교의 여건과 요구 등을 감안한 심도 있는 학교맞춤형 컨설팅을 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유덕중 모란 교무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교육과정 컨설팅이 전달식으로 이루어지던 연수형태에서 벗어나 학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향해 더욱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광양평생교육관이 인문학 강연을 통한 지식 축적 및 소통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9개교(16회) 1,80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일주를 통한 인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2일부터 3개교에서 657명을 대상으로 5회 강연한 오기범 여행작가는 '아찌다 보니 지구 반대편' '다시, 여행'의 저자이다.

오기범 작가는 31개국 123개 도시를 일주한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고 재미있게 녹여 연일 학생들

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17일에는 중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길에 대한 뜻깊은 강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영화로 보는 서양 미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최유진 강사는 마리앤미카엘의 대표이자 예술감독으로 인문학과 미술을 융합한 강연으로 어렵지만 한 미술 분야를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쉽게 풀이해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유진 예술감독의 첫 강연은 18일 광양용강중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4개교(5회) 468명의 학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